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이야기 설교, 제10회: 사사기 17-18장 설교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열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시간에는 강단 뒤에서 나와 설교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녹화 일정상 그렇게 하지 않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단 한쪽으로 갔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가 여러분과 카메라 렌즈를 번갈아 보면서 눈을 맞추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쪽 관객석을 봤다가 다시 여러분을 보고, 또 이쪽 관객석을 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계속 바라볼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구약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문학 형식, 특히 이야기 형식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다소 어두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삶과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존 칼빈이 한 말인데,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몇 년 전 컨트리 가수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가 '메리 고 라운드'라는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에 나오는 한 구절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잘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엄마는 메리케이 화장품에 푹 빠졌고, 오빠는 마리화나에 빠졌고, 아빠는 두 집 건너 메리케이에 빠졌어." 이건 우상숭배 아닌가요? 엄마는 메리케이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화장품 파는 데 완전히 미쳐있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좋은 것들도 때로는 다른 것에 빠져들 수 있죠. 메리케이 화장품을 파는 일이든, 요즘에는 에센셜 오일을 파는 일이든 말이에요. 그녀의 오빠는 어때요? 오빠는 마리화나에 중독됐어요. 글썄요,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장기적인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두 집 건너 사는 메리에게 푹 빠져 있잖아요? 이걸 성경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우상숭배 아닌가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결과는 뭘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우상숭배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메리케이에게 빠진다고 해서 정말 큰 해를 끼칠까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환상에 빠지는 게 정말 문제일까요? 왜 우상을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구약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약 시대에도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어린 자녀들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우상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성경이나 성경 앱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두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주변 이웃들을 닮아갈 때 스스로 파멸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상숭배가 왜 유익하지 않은지, 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7장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긴 은 1,100세겔, 어머니께서 저주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미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사실 여호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것을 훔쳤지만, 적어도 죄를 고백했으니 조금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2절에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가 은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을 때, 어머니는 “내가 이 은을 엄숙히 여호와께 바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우리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은으로 덮은 우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 은을 주님께 엄숙히 봉헌합니다.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당연히 “뭐라고? 농담하는 거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몇몇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 저자는 우리가 그 문제점을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 특히 신명기를 잘 알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하이라이즈’라는 잡지를 구독했었어요. 그 잡지에는 항상 이런 코너가 있었죠. 사진 한 장이 실려 있고, “이 사진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무에 자전거가 걸려 있다거나, 창틀에 바나나가 놓여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림들이었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었고, 물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신명기 5장 8절을 어긴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보게 될 첫 번째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돈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4절에서 미가는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은 이백 세겔을 가져다가 은세공인에게 주어 우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5절을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은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혹은 그가 신전을 짓고 가정 신상들을 모시고,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 곳의 중앙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만의 예배 장소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요? 아닙니다. 민수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6절에서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또는 옛 번역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왕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7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레위인으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가 머물 곳을 찾아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온 땅에 있는 여섯 개의 성읍 중 한 곳에 거주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백성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방랑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가는 당연히 "그럼 당신은 원래 배정된 레위

성읍으로 가야지.”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미가는 그에게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일 년에 은 열 세겔과 옷과 음식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합법적인 제사장이 생겼으니, 아들을 대신하여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11절에는 “레위 사람이 그와 함께 살기로 하고 그 젊은이가 그의 아들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가 이 젊은이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원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젊은 제사장이 미가에게 아들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고, 그 젊은이는 그의 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미가는 “이제 이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아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어긴 모든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셨으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보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물, 정확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1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으므로 정착할 자기 땅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 그림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 단 지파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남쪽, 즉 가나안 땅에 땅을 할당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직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야 했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18장 2절을 보면, 단 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지도자 다섯 명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탐사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단 지파 사람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이건 허가받지 않은 정탐 임무잖아”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참여했던 정탐 임무와는 다릅니다. 이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어, 저 사람은 밥이네." "어, 저 사람은 레위인 짐이네." 와 같은 의미도 아니겠죠.

아니요, 그건 단지 그가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 같군' 이라고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누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가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을 이야기하며 "그분이 저를 고용하셨고, 저는 그분의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부디 하나님께 우리의 여정이 성공할지 알아보도록 여쭙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몰감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여기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 불순종적인 행위에 대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제사장은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사람은 떠나 라이스에 도착하여 그곳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처럼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부족함이 없었기에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누구와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글썄요, 그들이 공격받기 쉬웠을 것 같지 않나요? 그들이 조라와 에스트 아올로 돌아왔을 때, 동족인 단 지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 공격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순진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맡기신 넓은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지파 사람 600명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조라와 에스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유다의 기랏예림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랏예림 서쪽 지역을 오늘날까지 마하나 단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하나 단은 '단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라이 땅을 정탐했던 다섯 사람이 동족인 단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있느냐? 저 집들 중 하나에 에봇과 몇몇 가정 신상과 은으로 입힌 우상이 있느니라.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 미가의 집에 있는 젊은 레위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단 지파 사람 600명은 성문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정탐을 했던 다섯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우상과 에봇과 집안신상들을 가져갔습니다. 제사장과 무장한 군사 600명은 성문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우상과 에봇과 집안신상들을 가져가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입 다물어 주십시오.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이시며 제사장이신 분께 가십시오. 한 사람의 집안을 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가문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그는 화를 내며 "뭐 하는 거야? 내 물건을 가져가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더 나은 기회를 갖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의 신부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했죠.

그래서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기회주의자군요. 그는 에봇과 집안 신상,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과 가축과 소유물을 앞에 두고 돌아서서 떠났다. 미가의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미가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잡고 소리쳤다. 그들이 소리치자 단 지파 사람들은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을 불러 싸우게 했습니까?" 미가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내가 만든 신상들과 내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내게 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십니까? 단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 중 몇 명이 화를 내며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협박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갔고, 미가는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던 라이스 백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어하며,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멀리 떨어진 도시들에 평화 조건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원래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라이스 사람들이 칼로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는 베이트 레호브 근처의 계곡에 있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 도시를 재건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원래 그 도시의 이름은 라이쉬였습니다.

그곳에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세웠고, 곧 큰 충격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엇을 얻게 될까요?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가는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미가는 1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들을 가져다가 가버렸다."

내게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없다. 물론, 잠시 동안은 위안과 안정감, 즐거움, 기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공허함만 남길 뿐이다.

그럼 단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글을 읽어보면 마치 그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던 것처럼 들리죠? 정말 호화로운 삶을 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절 끝부분에 나오는 작은 구절을 들어보셨나요? 우상이 세워졌을 당시 제사장들이 모세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30절 마지막 구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절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인들이 결국 북왕국을 침략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리아인들은 북왕국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결국 속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바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쁨과 위안,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들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속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 31절 끝부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계속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은 항상 실로에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4절에서 미가가 하나님의 집, 혹은 신들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18장 31절의 표현은 그 표현과 동일한데, 앞에 “그” 라는 단어가 붙어 특정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상 실로에 있었다” 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던 곳이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단에 있는 자신들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실로에 가서 참된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썩썩한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골고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상숭배가 비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구약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벽난로 위나 화장대 위에 조각상이나 실제 우상을 올려놓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좋은 것들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손주들 사진이 놓여 있어요. 손주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신이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아이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니 제가 몬태나 강에서 낚시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야말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즐기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플라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과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 한다면, 그분의 손길이 닿은 그 귀한 선물이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글쎄,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할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한 저의 기도는 오래된 아일랜드 찬송가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한 구절은 “기도합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인 저희가 우상숭배에서 멀리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꽤 짧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존 칼빈의 인용구로 시작했습니다.

존 칼빈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인용구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인기곡의 한 구절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설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요점이나 두 번째 요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개요는 있었고, 나중에 그 개요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었죠? 어쨌든 저는 그냥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야기 전체를 읽었습니다. 설교할 때 한 장 이상을 다루거나, 사무엘상 17장처럼 긴 장을 다룰 때는 그 내용 중 일부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부분을 요약하고, 서술자가 한 말이나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이야기를 다 읽지 않았군요'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글에 등장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공식적인 삽화를 딱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즈 매거진과 '거짓말 찾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이 작가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거짓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몇몇 부분에서, 젊은 레위 사람이나 단 지파 사람들처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짚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략적인 지연이라는 개념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미가가 24절에서 "너희는 내가 만든 신상들과 내 제사장들을 가져다가 가버렸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지만, 굳이 멈춰서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생각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 24절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8장 30절과 31절 끝부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포로 생활까지라는 짧은 구절에 밑줄을 긋고 있었어요. 이미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계속 사용했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7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에서 그 내용을 두세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리고는 오래된 찬송가인 "나의 비전이 되어 주소서"의 가사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떤 전통에서는 설교 전에 본문 전체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아, 그러면 이야기의 모든 내용이 드러나잖아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음, 대부분의 이야기, 특히 성경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미 들어본 내용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긴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보거나 읽을 때도,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시 느끼게 되죠. 결말을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설교 전에 성경 전체를 읽는 전통이 있는 교회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고, 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몇 가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강력한 울림을 줄 겁니다. 네, 제가 설교할 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 번의 강의를 통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데 더 큰 자신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른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 부분을 설교하는 당신의 사역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